

## 벤처, 정보보호 통한 신뢰 입증할 때

우리 사회 경제활동의 패턴은 인터넷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인터넷 뱅킹, 인터넷 보험, 온라인 증권거래, 인터넷 쇼핑, 전자입찰 등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은 컴퓨터를 중심으로 이동전화나 사무기기, 심지어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기기까지 한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시대를 곧 실현시킬 전망이다.

### 정보보호는 기업경쟁력의 바로미터

그러나, 인터넷은 세계에 모든 것을 열어놓는 개방성 때문에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등의 침해행위에 의한 범죄 및 테러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매우 취약하다. 주요 사회기반시설이 모두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정보시스템 훼손에 의한 시설의 마비나 기밀 유출에 따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정보보호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정보화사회가 성숙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와 기업, 개인 모두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나 대책이 부족하다면 곧바로 골짜기에 화려한 최첨단 정보시스템은 사상누각에 다름 아니다.

기업의 보안수준은 기업경쟁력의 척도로 여겨질 수도 있어 정보보호는 기업에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보안사고는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기업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소비자 정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기업에는 신뢰를 줄 수 없다.

전자상거래에서 정보유출은 곧바로 재산상 피해를 의미한다. 또 기업 내 핵심정보가 외부에 알려진다면 그 기업경쟁력은 사라지고 만다. 정보보호 수준 제고작업은 단순히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서 한걸음 나아가 대외적 이미지 개선과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동시에 이루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 백신설치가 전부? 안타까운 정보보호 현실

정보화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보보호는 디지털 강국으로 가는 밑거름이라는 인식 하에 우리나라도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에 대한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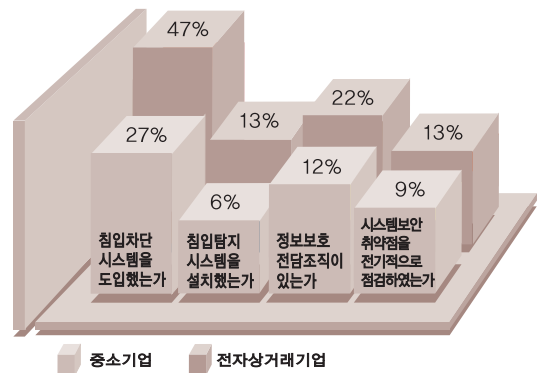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국내 중소기업의 시스템이 국제 해킹의 경우지로 이용되는 등 중소기업 정보보호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자금과 인력이 열악해 시설과 대책이 매우 저조한 형편이다.

해킹 바이러스로 인한 국내 피해추이를 살펴보면 해킹 건수는 일년 사이에 이미 두 배 이상이 되었으며 피해기관의 50% 정도가 중소기업으로 조사되고 있다. 월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건수는 2002년 6월 32건에서 2003년 3월 1158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스팸 릴레이로 인한 피해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국내 중소기업과 전자상거래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시스템에 관한 투자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정보보호를 위해 전산망 관련 예산의 5% 미만을 지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바이러스 백신 설치 이외의 정보보호 솔루션 구축도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보호의 목적은 자신의 정보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에게 침해 노출되는 사건을 방지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전자상거래 업체의 대다수는 바이러스백신의 설치만으로 정보보호 침해행위에 대처하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중소기업과 전자상거래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정보보호 시스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취약함을 드러내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참조)



《 중소기업과 전자상거래기업의 정보보호 대처 현황 》

## 벤처, 신뢰통한 효율성 제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디지털 혁명은 또 다른 산업혁명에 비교될 만큼 우리의 삶과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우리는 새로운 문화형성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과 문명의 출현에는 편익과 더불어 역기능이 수반되며 이 역기능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 여부에 따라 발전의 역사를 이루거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거나 하였다.

지식정보화사회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구성원 모두가 슬기롭게 대처하고 협동하는 것이야말로 선진정보사회를 이룰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정보사회는 구조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정보화의 이익을 향유하는 만큼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도 구성원 모두가 다해야 하는 사회인 것이다. 현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정보주체의 입장에서 중요한 지식과 정보는 모두 정보보호의 대상이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 일컬어지는 국내 정보통신 인프라의 효율성 제고와 경제전쟁의 핵심인 정보전쟁에서 정보보호는 우리기술과 지식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정보보호 활동의 주체도 국가로부터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기업 단체로 확대되고 정보보호에 대한 민간기업 단체로의 의존도도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성장과 국가산업을 주도하는 현실 속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가 낭비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환경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 요소라는 인식전환의 선두에 벤처기업이 자리하고 새로운 유통질서를 세워 나가는 것 또한 변화의 중심에 자리한 벤처기업의 역할이자 의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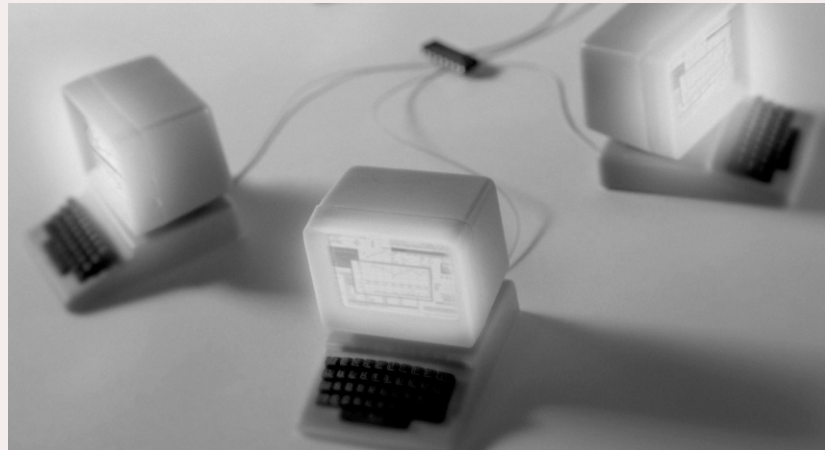
인터넷 환경에서는 바이러스로 인한 침해가 자신만의 피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시스템이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매개체로 이용될 수 있어 예방조치의 미비는 사회적 손실을 가중시키므로 경제활동의 중심체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은 꼭 필요하다 하겠다.

국가 유동성 위기 후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로 벤처기업에 대한 국가적 후원이 가능성에 대한 지원단계였다면 이제 벤처기업들은 효율성을 시장에서 입증해야 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하겠다. 기업의 장기적 효율성은 시장의 신뢰성 없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특히 온라인경제 구조 속에서 신뢰는 기업의 생명과 같다.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거래 관습을 형성하고 주도할뿐만 아니라 시장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또한 만들어 가는 것. 이야말로 벤처기업 본연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화의 핵심에 정보보호책임이 자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 사후 관리 포함하는 정책으로 실효 담아야

중소기업의 영세성은 정보보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정보보호 환경을 유지하는 영역 중의 하나로 남아



있으며, 이러한 환경이 자체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투자에 소극적인 이유로는 가장 먼저 비용부담(38%)이 지적되고 있으며 전문인력 부족(22%)과 전문지식 부족(21%)이 다음 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정부지원이 기존 중소기업 대상의 지원사업처럼 정보보호 솔루션을 중소기업에 저렴하게 지원하거나 무료로 지원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할 수 없으며 이는 자칫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는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지원은 비용부담의 경감과 함께 정보보호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담고 있어야 중소기업의 정보보호투자 유도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즉, 고려되어야 할 지원방안은 비용부담의 경감뿐만 아니라 먼저 영세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공정한 선별을 거친 후 취약점 분석 평가 등의 컨설팅서비스와 사후관리가 동반되는 지원대책이라야 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의 정부지원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5조에 따른 정보보호 시스템설비 투자 시 투자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들 수 있다. 이 외에 낮은 사업성으로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의 정보보호 시장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및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보보호 실천을 위한 교육 지원 및 홍보활동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체계구축을 위한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보통신의 기술혁신은 우리에게 기회와 함께 과제 또한 안겨주고 있다. 이제 새로운 기술의 충격과 환상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투자와 사업을 추구하고 개발할 때이며, 이러한 사업의 선두에 자리한 벤처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의 구축에 앞장서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수행과 함께 새로운 디지털경제의 주역이 되어주기를 희망해 본다. **ICOVN**